

젊은 작가들, 평창올림픽 계기 평화를 논한다

# 광주서 19일 '국제인문포럼' 개최

여성·빈곤 등 6개 주제  
광주·전라권 포럼 개최  
서울·마산·청주 등서도  
세계 작가 200여명 참여

세계 문학을 이끌어갈 젊은 작가들이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우정과 연대의 장을 모색하고자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계기 국제인문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인문포럼은 '세계의 젊은 작가들, 평창에서 평화를 이야기하다-자연, 생명, 평화의 세계를 위하여'라는 주제로 오는 19일부터 22일까지 광주와 마산, 청주, 서울, 평창 등에서 열린다.

이번 포럼에는 2016년 한강의 '체식주의자'를 번역해 맨부커 인터내셔널상을 공동 수상한 데버러 스미스, 카자흐스탄의 알렉산드르 강, 한국의 김숨·손흥규 작가 등 국내외 문인 200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19일부터 20일까지 광주와 마산 두 곳에서 지역별 인문포럼을 개최하고 20일에는 광주에서 통합 포럼을 개최한 뒤 21일과 22일에는 서울과 평창에서 열리는 대회에 합류해 세계의 젊은 작가들과 우정을 나눌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서울대학교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이번 국제인문포럼은 '여성 혹은 젠더',



정양주 시인



고영서 시인



조진태 시인



이화경 소설가



안점욱 동화작가



조성국 시인

'빈곤', '분쟁 혹은 분단', '생태와 생명', '언어와 문화다양성', '지역과 세계' 등 주제별 6개 색선으로 나눠 진행된다.

광주, 전라권역 인문포럼은 19일(오후 6시) '생명을 노래하다' 주제로 광주 시청자 미디어센터(다목적홀)에서 열린다.

지역 작가 100여 명이 참가해 시낭송 및

동화낭송 퍼포먼스, 축하공연, 생태 선언문 발표와 채택을 할 예정이다. 시인인 송재별 6개 색선으로 나눠 진행된다. 광주, 전라권역 인문포럼은 19일(오후 6시) '생명을 노래하다' 주제로 광주 시청자 미디어센터(다목적홀)에서 열린다. 지역 작가 100여 명이 참가해 시낭송 및

먼저, 전숙경 씨 사회로 강해진 시인이 대표로 나서 '생명 선언문' 발표와 채택을 할 예정이다. 이어 광주시립교향악단 수석 단원인 정은지 씨가 '생태'를 주제로 플루트 독주를 하고 최미정 시인이 '동백, 언덕', 백애송 시인이 '석양에 서서'를 낭송한다.

다음으로 이화경 소설가가 '초식' 중에서 한 부분을 낭독한다. 조진태 시인과 고영서 시인은 각각 '물과 공기와 흙, 그리고 대지의 순환을 꿈꾸는 빛고를 序詩', '복암리'를 낭독한다. 조성국 시인은 '적멸'이라는 시를 통해 오늘날 간과되고 있는 생태 환경의 중요성을 환기한다. 또한 박인하 시인은 '보드피플', 고선주 시인은 '꽃'을, 정양주 시인은 '봄날은 길다'를 낭송할 예정이다.

이어 아베와 딸로 구성된 '붕어빵요들러스'가 '생태'를 주제로 곡을 연주한다. '붕어빵요들러스'의 동화작가 김성범씨는 2015년부터 월드요들페스티벌 국제음악회를 3회째 운영했으며 지금까지 '호랑이'나, '내가 맛있대' 등 창작동요음반 12개를 만들었다. 이번 포럼에서 '붕어빵요들러스'는 자연과 생태의 소중함을 담은 노래를 부를 계획이다.

이밖에도 동화낭송도 펼쳐진다. 제5회 푸른문학상 새로운 작사상을 수상한 안점욱 작가는 '누가 뭐래도 공주님' 중에서 일부를 들려준다.

마지막 순서로 세계작가대회 광주·호남권역 발대식을 끝으로 지역 행사는 막을 내린다. 문의 010-2680-9426.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지난해 제7회 아셈 문화장관회의의 만찬 행사가 열린 광주문화재단 전통문화관.

## 관광공사 선정 '코리아 유니크 베뉴'

### 광주문화재단 전통문화관·월봉 서원

광주문화재단 전통문화관과 월봉서원이 한국관광공사가 진행한 공모전 '2018 KOREA Unique Venue (2018 코리아 유니크 베뉴)'에 광주를 대표하는 문화시설로 선정됐다.

'2018 코리아 유니크 베뉴'의 '유니크 베뉴'는 지역의 문화적 독특성을 체험하거나 장소성을 느낄 수 있는 고택이나, 역사적 건축물, 박물관 등 특색 있는 회의장소를 뜻한다. 이번 공모전은 한국관광공사가 MICE(Meeting, Incentives, Exhibition)를 개최하는 공간인 지역의 문화시설, 공공시설 등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매해 진행하고 있다.

이번에는 전통문화관 등 총 20곳이 선정됐다.

전통문화관이 이번 '2018 코리아 유니크베뉴'로 선정될 수 있었던 건 지난 2016년 제7회 아셈(아시아유럽정

상회의) 문화장관회의의 만찬 행사에서 처음 MICE 장소로 활용돼, 광주를 대표하는 시설로 호평을 받으면서 주목을 받았다.

월봉서원은 조선 유학 전제에 큰 영향을 미친 기대승(1527~1572)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선조 8년(1575)에 광산군(현재 광주시 광산구)에 세워졌다. 1654년(효종 5) '월봉(月峯)'이라고 사액된 만큼 중요 유학 교육기관으로 인정을 받았다. 그동안 월봉서원은 '여유(悠游)'와 선비문화 체험 등 유교를 콘텐트화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각광 받았다.

'2018 코리아 유니크베뉴'로 선정된 20곳은 '코리아 유니크베뉴' 홍보물 제작 및 공사 해외지사 등 활용, 국내 여행사 담당자 대상 팸투어 등 홍보를 1년 동안 지원받게 된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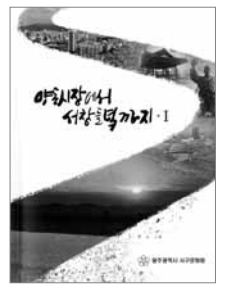
## 광주 서구 문화유산의 재발견

### '...서창들넌까지 1' 발간

서민들의 애환이 담긴 양동시장, 문화와 오월 정신이 숨쉬는 5·18 기념공원과 자유공원, 세월의 흐름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천주교 광주대교구청 브레리관, 많은 이들의 휴식 공간 품안 호수...  
광주시 서구의 문화 자원을 정리한 책이 발간됐다.

광주 서구 문화자원총람위원회가 3년 간의 준비 끝에 내놓은 '양동시장에서 서창들넌까지 1'(사진)은 서구의 문화유산을 재발견하고 정리한 책이다.

책은 '빛나는 땅 우리 역사', '우리 고장의 문화자원', '사람과 이야기가 있는 쉼터', '문화와 건강이 즐거운 공



간', '우리가 걷는 우리의 터전' 등 모두 5부로 구성돼 있다. 서구의 이름과 연혁, 옛 지도부터 시작해 만귀정, 용두동책이 발간됐다.

고인돌, 유촌동 석조여래좌상 등 유형문화재, 농성동 연화 당산제 등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행사들을 소개하고 있다. 또 김곡주, 김계근 등 서구 출신 인물들의 자로도 담았다.

김중 시인과 노성태 국제고 교사 등이 필진으로, 김정희 전 서구문화원 사무국장 등이 조사요원으로 참여했다. 문의 062-681-4174. /김미은기자 mekim@

## 4개국 한국학 연구자 광주서 학술대회

18~19일 전남대

세계의 한국학 및 지역어·문화 연구의 동향을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는 국제 학술행사가 전남대에서 열린다.

전남대 'BK21플러스 지역어 기반 사업단'(단장 신해진·국어국문학과 교수)과 인문학연구소(소장 신해진), 한국어문학연구소(소장 김동근·국어국문학과 교수)는 18일과 19일 양 이틀간 전남대 G&R 허브 대학의실에서 제5회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아시아에서의 한국어문학을 활용한 한국문화교육'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국제학술대회에는 한국과 중국, 대만, 베트남 등 4개국 학자들이 참석해

각국의 한국학 연구 동향 및 지역어와 문학에 대한 비교 연구의 성과를 발표한다.

첫날인 18일에는 중국 중앙민족대학의 강용택 교수, 임업과기대학의 이홍란 교수, 대만 국립정치대학의 진경지 교수, 베트남 국립호치민대학의 흐엉마이 교수가 주제발표를 한다.

19일에는 조선대 김형중 교수, 고려대 송혁기 교수, 전남대 배승주 교수의 발표와 함께 경북대 BK21플러스 사업단 대학원생(김소연), 전남대 사업단 박사과정 대학원생(진주, 장담, 정도미, 최옥정)의 연구 성과 발표가 이어진다. 문의 062-530-0230.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 여든다섯 노시인의 인생 회고록

### 윤복식씨 '나의 인생 팔십년'

올해 85세 노(老)시인이 지나온 인생을 정리한 문집을 발간해 화제다.

주인공은 진도 출신 윤복식(사진) 선생으로, 저자는 최근 '나의 인생 팔십년'(오성)을 펴냈다.

저자는 40여 년을 공직에 근무하다 지난 95년 광주시 서기관으로 정년퇴직을 했다. 평소 글쓰기를 좋아해 틈틈이 써 둔 글을 이번에도 회고록 형식으로 묶어냈다.

책에는 '80년을 살고보니', '우리 어머니!' 등 수십 편의 시와 2016년 전남문학상 수상 관련 자료, '팔순을 살며!' 등 10여 편의 수필 등이 수록돼 있다. 또한 저자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다양한 사진들도 담겨 있어 지나온 시간을 조망할 수 있다. 각각



의 작품에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터득한 지혜와 연륜이 오롯이 깃들여 있어 오늘날 사는 젊은이들이 귀담아 들을 법하다.

저자는 "노년의 삶은 기약이 없기에 노년의 행복은 새로운 것을 추구하기보다는 항상 감사하는 마음, 행복한 마음을 일상으로 삼고 사는 것이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정신적으로도 건전하며 의욕과 열정, 결단력도 더욱 높아진다"고 밝혔다.

한편 저자는 1999년 한국시 서부문 신인상을 수상했으며 '간절한 나의 삶' 등을 펴냈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Aroma Life**  
www.aroma-life.co.kr

KCPBA 2016  
2011  
대한무역진흥공사

건강과 아름다움을 모두 갖춘  
맞춤형 기능성 속옷의 명가  
**아로마라이프**

아로마라이프 기능성 속옷은 한국, 미국, 일본, 중국 특허를 받은 유니크한 디자인과 일본 도레이社 LYCRA (별단면속각형)사용 및 특수 물질가공(원적외선, 음이온효과)으로 편안한 착용감과 생리적인 불편함을 해결해 주고 건강을 생각하는 속옷입니다.

<p><b>아모리이온</b></p> <p>브라+슈트+거들 4개국 특허 3단 일체형 슈트</p>	<p><b>아모리이온 롱바디</b></p> <p>브라+슈트+거들+레깅스 4개국 특허 4단 일체형 슈트</p>	<p><b>아실리 바디슈트</b></p> <p>블랙은사 바디슈트의 은사 레이스 품평회 1등</p>	<p><b>비비드 아모르</b></p> <p>러닝+팬츠 2단 일체형 남성용 슈트</p>
--	--	--	--

대표전화 1588-2219